



1 지난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 더블헤더 1차전. 7회초 1사 2·3루에서 KIA 김원섭의 우익수 플라이때 3루 주자 이종범이 태그업, 홈으로 파고 들고있다. 2 SK 박경완 포수가 홈 플레이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종범이 센스있게 왼손을 다리사이로 집어넣어 홈플레이트를 터치하고 있다.(흰색 원안) 3 하지만 이종범은 결국 아웃으로 판정받고 말았다.

‘불혹의 투혼’ 이종범은 살아있다



오심 논란 부른 ‘신기의 슬라이딩’ 팬들도 찬사 팀승리 위해 치고 뛰고... 후배들에겐 끈기 주문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지만 아쉽다.” 야구팬들의 화제 중심에 선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 17일 SK전에 나온 오심에 관련한 아쉬운 심경을 밝혔다.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 3-4의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던 7회말 1사 2·3루. 김원섭의 타구가 우익수 박재홍의 글러브에 들어간 사이 3루 주자 이종범이 스타트를 끊었다.

노련한 포수 박경완이 홈을 지키고 서있었지만 이종범은 슬라이딩을 하며 박경완의 두 발 사이로 왼손을 뻗어 홈플레이트를 찍었다. 하지만 주심의 손은 아웃을 선언했다.

이종범은 “타구가 짧아 아웃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슬라이딩을 하면 살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홈으로 뛰어든 짧은 시간을 회상했다.

이종범은 “세이프라고 생각하고 일어섰는데 아웃 판정이 내려졌다”며 “좀 더 수준 높은 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물론 심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정을 두고 KIA 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단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오심에 대한 성토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홈페이지에도 6천 건이 넘는 항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이종범이었기에 가능했던 ‘신기의 슬라이딩’이라는 팬들의 찬사도 쏟아졌다.

팬들의 예전한 사랑과 관심은 이종범이 선수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종범은 “늘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는 팬들이 있어 지금도 그라운드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녹슬지 않은 야구 센스를 과시한 이종범은 요즘 타격감도 좋다. 덕아웃에서 어린 후배들을 독려하며 최고참 선수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이종범은 경험이 적은 후배들에게 상황에 따른 여러가지 대처법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준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초특급 신인이었던 이종범은 “신인때는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서 서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한 루타도 더 진투하고 싶어서 겁없이 치고, 뛰었다”며 “요즘 후배들은 고비를 맞으면 쉽게



최희섭 4월 MVP KIA 타이거즈의 최희섭이 19일 LG 트윈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밝은안과 21이 시상하는 월간 MVP를 받았다. 최희섭은 4월 한 달간 84타수 27안타 7홈런 15타점을 올리며 맹활약했다.

포기하는 게 아쉽다”고 후배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주문했다. 올해 특별히 개인적인 목표는 설정해두지 않았다. 팀의 승리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 시즌을 보내는 이종범의 목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연아 올림픽 금 프로젝트

“비밀이에요”

배경음악·안무 미공개키로

‘피겨퀸’ 김연아(19·고려대)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시리즈에 선보일 새 프로그램 완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보안 유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2009 세계피겨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챔피언 김연아는 지난 10일 41일간의 국내 체류를 마치고 전지훈련지인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갔다.

현지 도착과 함께 시차적응을 위해 하루 동안 휴식을 취한 김연아는 지난 12일부터 매일 두 차례 빙판 훈련을 정상적으로 치르고 있다.

김연아의 첫 번째 과제는 2009-2010 시즌에 선보일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배경음악을 결정하고 안무의 윤곽을 잡는 것이다.

캐나다로 돌아가기 직전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지만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김연아는 토론토 도착 이후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새 프로그램에 쓰일 배경음악과 안무의 방향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팬들이 기대하는 피겨퀸의 새 프로그램은 당분간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의 구동희 부사장은 19일 “김연아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론 인터뷰는 물론 훈련 장면의 미디어 노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라며 “올림픽 프로그램을 미리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구 부사장은 이어 “원래 새로운 프로그램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공개하는 게 정상적이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모든 준비 과정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며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미리 공개했을 때 선수가 자칫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말뉴스



광주제일고가 19일 서울 목동경기장에서 열린 제64회 청룡기고교야구선수권대회 화순고와의 경기에서 연장 10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6대5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기뻐하고있다(조선일보 제공)

광주일고 승부치기로 16강

청룡기 고교야구 화순고에 6-5 신승

승부차기에서 광주일고와 화순고의 표정이 엇갈렸다. 광주일고는 19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64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청룡기 1회전에서 연장 10회 승부차기 끝에 6-5로 신승을

거두고 16강에 진출했다. 화순고가 1회초 1사 만루에서 5번 서우현의 스위즈 번트로 먼저 득점을 했다. 5회말 광주일고의 반격이 시작됐다. 1사에서 백세웅이 안타를 치고 나간 뒤 이주호의 2루타 때 홈을 밟아 1-1. 손준혁의 1타점 2루타로 2-1로 승부를 뒤집은 광주일고는 6회말 1사 1·2루에서 백세웅

의 우전안타로 1점을 달아냈다. 이어 불넷으로 만든 만루찬스에서 강민국의 2타점 적시타가 나오며 점수는 5-1이 됐다. 4점차로 승부가 기운 9회초 화순고의 뒷심이 발휘됐다. 2사 1·2루에서 정진기의 적시타로 5-2. 1루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만루가 됐고, 김선현의 싹쓸이 2루타로 5-5가 되면서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다. 무서운 기세로 승부를 뒤돌린 화순고가 연장 10회 점수를 내지 못한 사이, 10회말 광주일고가 희생번트로 1사 2·3루를 만들었다. 강민국이 고의 사구로 걸어가면서 만루, 포수 신진호가 볼을 놓치면서 3루주자 김요셉이 홈을 밟아 경기가 마무리 됐다. 광주일고는 22일 오후 1시 중앙고와 원주고의 승자와 8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